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이 규 용*

일자리 창출 논의에서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사업 연계 및 협력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과 지역을 망라한 종합적인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자체 또한 일자리 창출 관련 전담부서를 두고 지역차원의 일자리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일자리 정책의 거버넌스 구축이나 전달체계의 효율화,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의 한가운데 지역이슈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서 지역이 갖는 공간적 특성 및 행정주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 투영된 결과이다.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한의 재배분이나 행정분권이 라는 지역의 기능적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이슈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이슈를 앞에서 언급한 지역 내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나 전달체계의 효율화의 틀에서 접근하기에는 지역은 보다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일자리 정책 협력체계의 강화, 지역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과 같은 정책 매뉴얼의 개선은 지역차원의 일자리 성과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자칫하면 방향성에 대한 담론에 그칠 우려도 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역에서의 고용 문제는 지역산업구조, 인구 및 노동공급 등 인적자본이나 지역입지와 같은 지역특성요인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이에 따른 권한의 이양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leeky@kli.re.kr).

OECD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 간 노동시장 성과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차이는 지역의 혁신적인 활동, 제품·요소 시장에서의 접근성, 노동력의 질, 지역 제도의 효율성, 경영 및 지원서비스와 같은 지역특수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간 특성의 차이는 지역 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일자리 창출 문제는 지역수준의 고용정책 이상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일자리 창출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산업구조나 입지상태와 같은 외생적인 여건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을 위한 내부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고용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지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이 아닌 지역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고용전략을 하부단위로 끌어내려 이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급변 노동리뷰의 원고에서 보듯이, 지역 수요에 부응하여 잘 훈련된 인력은 지역에 머무르지 않으며 지역에서는 여전히 인력부족이라는 미스매치 현상을 겪게 된다. 이는 훈련의 실패나 노동공급 정책의 실패가 아닌 지역이 안고 있는 산업구조나 노동력 수급구조, 지역입지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실현가능한 역할모델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가령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시군구형과 같은 지역입지적 특성을 기초로 하되 해당 유형 내에서 산업구조나 지리적 특성, 인구구조 등을 고려한 하부단위의 지역일자리에 대한 역할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 모델에는 산업이나 문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같이 지역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지역특성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고용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며 나아갈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단위이다. 사람이 유입되어야 하고, 더불어 생활하며, 일하며 소득을 얻고, 문화를 향유하며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지역 여건은 각각 다를 수 있으나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이 지향해야 하는 지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KLI**